



제 19대 대선과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

2017년 5월 2일

이한수_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 유권자들의 공공 의제 인식

-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성장 23%
- 문재인 후보 지지자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정치개혁
- 안철수 후보 지지자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장과 안보, 일자리
- 대부분의 유권자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주요한 국정 과제로 인식

2. 사드배치 찬반 논란

- 사드배치 찬성 비율 약 57.2%, 반대 약 37.9%
-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 지지자 사드 배치 반대 입장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 지지자 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정당과 이념에 따라 선호가 갈리는 전통적인 쟁점의 특징 가짐

3. 대북 강경 정책 유지 강화 vs. 남북간 교류 협력 강화

- 교류 협력 강화 선호 50.5%, 강경정책을 유지/강화 선호 46.1%
- 이념과 당파성에 따라 확연히 구분

4. 성장 vs. 복지

- 복지가 더 중요 49.3%, 성장이 더 중요 48.5%
- 10대부터 40대 성장보다는 복지가 더 중요, 50대 이상 복지보다 성장이 더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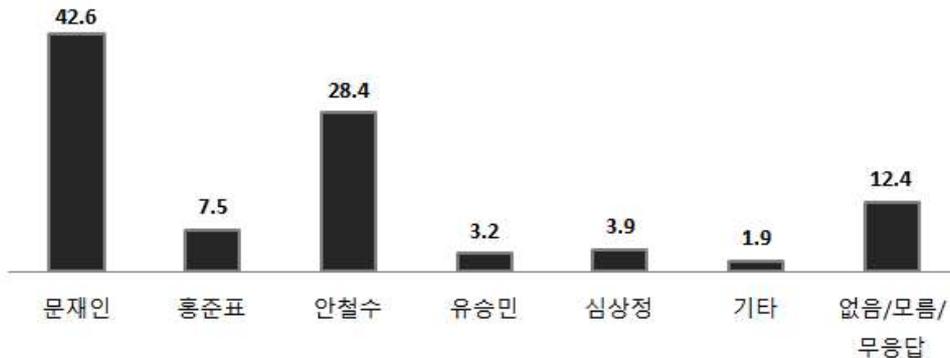
5. 국민통합 vs. 적폐청산

- 후보지지와 당파성, 이념, 연령대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
- 10대부터 40대 국민통합보다 적폐청산이 중요, 50대 이상 적폐청산보다 국민통합이 중요



-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대통령이 파면되고, 15일 차기 대선일이 5월 9일로 확정된 후 주요 대선 후보들의 행보는 바쁘게 이어져오고 있다. 지지율로 보자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림 1] 후보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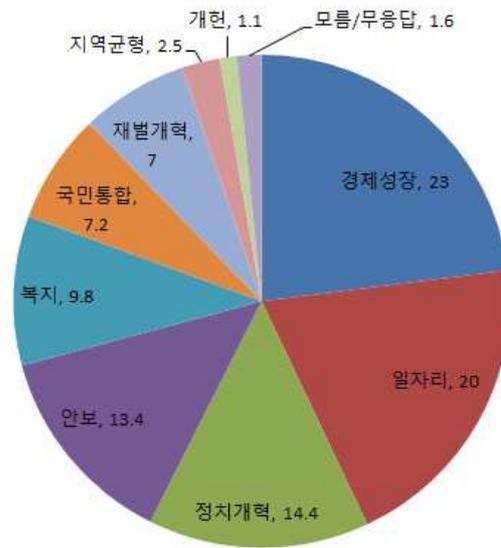


- [그림 1]은 지난 4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동아시아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1,5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후보자 지지에 관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약 42.6%로 여타 후보들에 비해 가장 높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28.4%이며, 두 후보 사이의 격차는 14.2% 정도이다. 지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는 증감을 반복해왔다. 최근 들어 두 후보 사이의 격차는 조금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몇 차례의 방송토론 등 선거운동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지율의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 유권자들의 공공 의제 인식

- 후보 지지라는 측면에서 독주는 아닐지라도 특정 후보의 지속적인 우세가 관찰되는 것에 비해, 정책이나 쟁점과 관련한 유권자들의 선호는 한 방향으로의 쏠림이 아닌 양분이 더 일반적이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유권자들의 선호를 물었다. 아래의 그림에 따르면, 우선 시민들이 생각하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경제성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들 중 23%가 경제성장을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다.

[그림 2] 차기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 경제성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국정과제는 일자리 문제 해결로 20%이다. 반면 복지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유권자들의 비율은 약 9.8%였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복지의 한 종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성장과 맥을 같이 하는 선택으로 보아야 하는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어지는 설문결과에 따르면, “복지”와 “성장”에 대한 선호가 약 49.3%와 48.5%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일자리 문제를 경제 성장보다 복지 측면으로 인식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더 높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개혁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14.4%)을 차지했으며, 안보는 13.4%로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1] 후보 지지에 따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

	정치 개혁	재벌 개혁	지역 균형	복지	일자리	국민 통합	경제 성장	안보	개헌	모름/무응답
문재인	18.4	10.6	3.1	10.9	24.2	6.1	21.1	4.4	0.8	0.3
홍준표	15.8	1.9	2.6	8.2	14.1	4.4	12.2	39.1	1.0	0.7
안철수	10.4	3.1	1.4	7.8	19.0	7.4	27.3	19.7	1.8	2.1
유승민	15.6	3.8	1.9	6.3	10.0	11.8	22.6	21.9	1.9	4.1
심상정	12.8	12.7	3.4	14.2	10.3	12.6	20.2	9.0	0.0	4.9
기타	29.3	14.7	3.2	4.3	10.3	7.0	18.3	12.8	0.0	0.0

-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보 지지에 따라 유권자들의 국정 우선 과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다른 양태를 보인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경

우, 경제성장과 일자리, 그리고 정치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 경제성장과 안보, 그리고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지지자들도 안보를 주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정당 지지에 따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

	정치 개혁	재벌 개혁	지역 균형	복지	일자리	국민 통합	경제 성장	안보	개헌	모름/무응답
더불어민주당	17.9	9.5	3.2	11.3	24.1	6.1	20.9	5.5	1.2	0.4
자유한국당	10.7	0.7	3.2	6.7	12.2	6.1	14.9	43.2	1.5	0.7
국민의당	8.8	3.6	1.9	9.2	20.4	9.5	26.1	16.3	1.6	2.7
바른정당	11.2	1.3	1.4	8.4	11.4	9.6	24.3	31.0	1.3	0.0
정의당	20.3	19.5	3.0	9.5	21.2	8.8	15.3	1.4	0.0	1.0
기타정당	23.7	10.7	4.3	4.0	14.1	7.9	24.1	11.1	0.0	0.0
모름/무응답	11.6	5.1	1.5	10.0	18.0	6.6	29.2	13.4	0.8	3.9

- 이러한 결과는 정당 지지나 이념에 따른 인식과 비견할만한 분포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자들과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안보를 다음 정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들과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정치개혁을 상대적으로 좀 더 주요한 국정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이념을 관통해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주요한 국정 과제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정당 지지에 따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

	정치 개혁	재벌 개혁	지역 균형	복지	일자리	국민 통합	경제 성장	안보	개헌	모름/무응답
진보	19.2	9.7	2.7	11.1	21.2	6.2	21.8	6.0	1.3	0.8
중도	13.0	7.2	2.0	10.5	21.9	8.0	24.8	10.7	0.7	1.3
보수	10.4	3.7	3.5	7.1	14.5	7.3	22.5	28.0	1.5	1.4
모름/무응답	10.9	3.5	0.0	8.0	27.8	7.6	18.6	11.7	0.0	11.9

2. 사드배치 찬반 논란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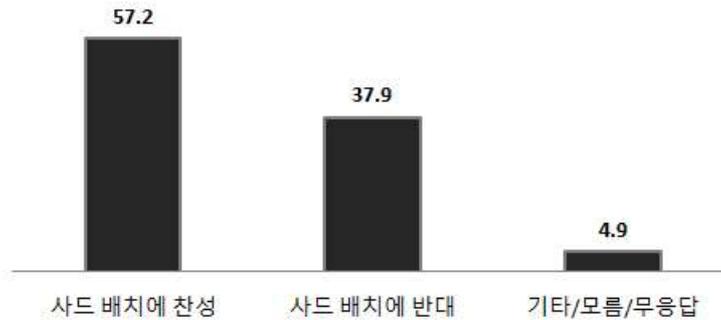
- 이번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 중 하나는 사드배치이다. 후보자들이 각기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드배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도 찬반으로 어느 정도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응

1) 설문문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다.



답자의 비율이 약 57.2%이고, 반대하는 견해는 약 37.9%이다. 두 선호 비율의 차이는 19.3% 정도이다.

[그림 3] 사드 배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 (%)



- 이 차이는 후보와 정당 지지에 따라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래의 표는 후보 지지에 따른 사드배치 찬반 의견의 분포를 보여준다. 이 표의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경우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전체적으로 사드 반대보다는 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후보 지지에 따른 사드 배치 찬성과 반대 분포 (%)

	찬성	반대	기타/모름/무응답
문재인	35.6	59.9	4.5
홍준표	94.1	4.9	1.1
안철수	77.4	18.9	3.7
유승민	67.8	29.8	2.4
심상정	40.5	55.7	3.8
기타	78.4	21.6	0.0
없음/모름/무응답	61.7	25.1	13.2

- 이러한 분포는 정당 지지에 따른 찬성과 반대에서도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 아래의 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약 56.6%, 그리고 정의당 지지자들의 약 69.7%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지지자들의 93.1%, 75.8%, 그리고 77.7%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정당 지지에 따른 사드 배치 찬성과 반대 분포 (%)

	찬성	반대	기타/모름/무응답
더불어민주당	39.5	56.6	3.8
자유한국당	93.1	4.3	2.6
국민의당	75.8	19.5	4.7
바른정당	77.7	18.1	4.2
정의당	28.2	69.7	2.1
기타정당	58.1	38.4	3.5
모름/무응답	63.0	27.9	9.0

- 사드 배치는 이념에 따른 분포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56.6%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반면,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78.5%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포는 사드 배치가 정당과 이념에 따라 선호가 갈리는 전통적인 쟁점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6] 이념에 따른 사드 배치 찬성과 반대 분포 (%)

	찬성	반대	기타/모름/무응답
진보	39.8	56.6	3.6
중도	58.3	35.9	5.8
보수	78.5	19.5	2.0
모름/무응답	62.3	10.9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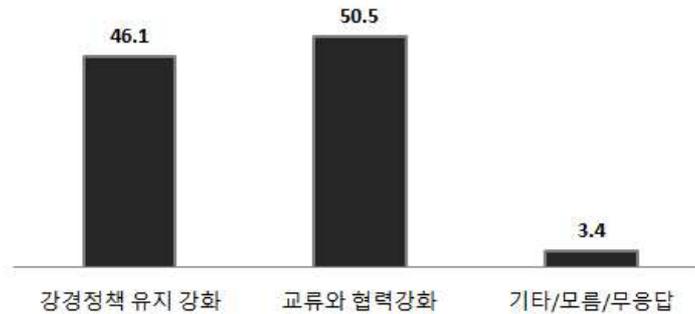
3. 대북 강경 정책 유지 강화 vs. 남북간 교류 협력 강화²⁾

- 사드배치가 안보와 연계된 쟁점이라면, 대북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와 유사한 형태를 보일 것이다. 대북 유화 정책과 강경 정책의 선호를 묻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약 50.5%의 유권자들이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선호한 반면, 약 46.1%의 응답자들이 강경정책을 유지/강화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앞선 사드배치 관련 결과와 비교하면, 대북정책 관련 두 선호 사이의 분포가 좀 더 균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수적 선호로 볼 수 있는 사드배치 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었던 것에 비해 대북 정책에서는 좀 더 유화적인 정책 선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설문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고, 선택지는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와 “북한에 대해 강경정책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다.



[그림 4] 대북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 (%)



- 지지 후보와 정당, 그리고 이념에 따른 분포 역시 사드 배치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좀 더 유화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대북 강경정책을 유지/강화하는 선호를 보인다.

[표 7] 후보 지지에 따른 대북정책 선호 분포 (%)

	강경	교류/협력	기타/모름/무응답
문재인	26.4	72.3	1.4
홍준표	74.8	20.4	4.7
안철수	59.2	37.1	3.7
유승민	74.8	19.0	6.2
심상정	34.7	62.1	3.2
기타	75.8	24.2	0.0
없음/모름/무응답	58.2	32.7	9.1

-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정당 지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들은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여타정당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선 표와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 지지자들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강경한 대북정책 선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정당 지지에 따른 대북정책 선호 분포 (%)

	강경	교류/협력	기타/모름/무응답
더불어민주당	28.5	69.7	1.8
자유한국당	77.0	18.0	5.1
국민의당	51.4	42.8	5.8
바른정당	76.4	22.4	1.2
정의당	25.3	74.7	0.0
기타정당	57.4	38.8	3.8
모름/무응답	58.5	36.4	5.1

- 이념에 따른 대북정책 선호 역시 앞선 결과와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즉, 진보적인 유권자들일수록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는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선 사드배치와 사뭇 다른 결과는 자신의 이념을 중도라고 답한 유권자들이다. 사드 배치의 경우 이념적 중도층에서 사드배치 찬성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대북정책에서는 교류와 협력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사드 배치가 대북정책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대외정책 과도 연관이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표 9] 이념에 따른 대북정책 선호 분포 (%)

	강경	교류/협력	기타/모름/무응답
진보	31.2	66.6	2.2
중도	47.2	50.3	2.5
보수	66.7	31.4	1.9
모름/무응답	34.9	31.9	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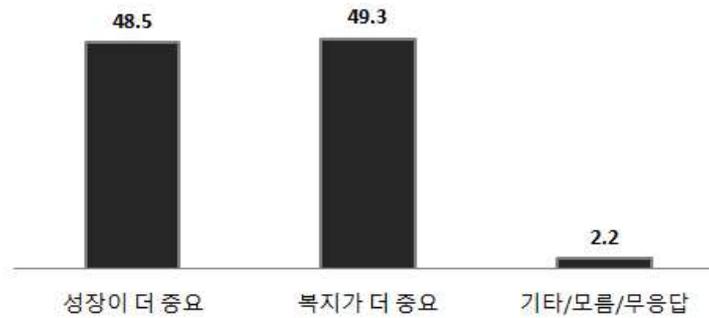
4. 성장 vs. 복지³⁾

- 당대북/안보 정책과 더불어 성장과 복지를 둘러싼 논쟁은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쟁점들 중 하나이다. 이 쟁점 역시 유권자들의 선호는 성장과 복지로 양분되어 있다. 전체 설문 참여자들 중 약 49.3%가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약 48.5%는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분포는 성장과 복지를 둘러싼 대한민국 시민들의 선호가 통합적이라기보다 대립적임을 의미한다. 선되어서는 안 될 후보 조사결과에서 박근혜 후보를 꼽은 응답비율은 28.8%로 지난 11월 조사 대비 3.0% 포인트(p)가 높아졌다. 반대로 문재인 후보는 꼽은 응답비율은 5.8%로 지난 조사 대비 3.7% 포인트(p) 감소하였다.
- 박근혜 후보 지지층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은 12.2%인데 반해,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이 59.3%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동층에서도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토층, 즉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이 15.4%로 문재인 후보라고 답한 비율(3.8%)보다 4배가량 높았다.

3) 설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복지와 성장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다.



[그림 5] 성장과 복지에 대한 유권자 선호 (%)



- 앞서 살펴본 안보 관련 쟁점들과 마찬가지로 복지와 성장 역시 당파성과 이념에 따라 선호가 나뉘는 전통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정당 지지에 따른 유권자들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선호 분포를 보여준다. 이 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들이 성장에 비해 복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지자들은 복지보다는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포는 안보 관련 쟁점에서 확인한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눈에 띄는 부분은 바른정당 지지자들이 국민의당 지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를 더 강조하는 것이다. 반면 안보 관련 쟁점에 있어서는 바른정당 지지자들이 좀 더 보수적인 선호를 보였다.

[표 10] 정당 지지에 따른 성장과 복지에 대한 선호 분포 (%)

	성장	복지	기타/모름/무응답
더불어민주당	35.1	63.2	1.8
자유한국당	78.9	17.7	3.4
국민의당	58.1	39.4	2.6
바른정당	57.5	42.5	0.0
정의당	18.7	78.1	3.2
기타정당	51.0	47.3	1.7
모름/무응답	58.7	38.7	2.6

- 이념에 따른 차이도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진보가 복지를 선호하고 보수가 성장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기존의 양태가 관찰된다. 중도층의 경우 성장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북정책의 경우 중도층은 좀 더 유화적인 정책 방향을 선호하였다.

[표 11] 이념에 따른 성장과 복지에 대한 선호 분포 (%)

	성장	복지	기타/모름/무응답
진보	32.8	66.5	0.7
중도	54.3	43.6	2.0
보수	60.0	37.5	2.5
모름/무응답	57.3	26.8	15.8

- 이러한 선호의 분포는 후보 지지와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다. 아래의 표에 따르면, 홍준표,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은 성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당 지지와 유사하게 문재인,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은 복지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유승민 후보 지지자들이다.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성장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했던 것에 비해, 유승민 후보 지지자들은 성장에 비해 복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승민 후보가 바른정당 의원들 평균에 비해 좀 더 복지 지향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할 수 있으며, 지지자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12] 후보 지지에 따른 성장과 복지에 대한 선호 분포 (%)

	성장	복지	기타/모름/무응답
문재인	33.8	64.6	1.6
홍준표	70.7	25.5	3.8
안철수	65.2	33.5	1.4
유승민	38.8	57.4	3.8
심상정	26.2	72.4	1.4
기타	39.3	57.7	3.0
없음/모름/무응답	58.3	36.5	5.3

- 성장과 복지를 둘러싼 선호의 차이에서 차별점이 부각되는 변수는 나이이다. 아래의 표는 연령대의 변화에 따른 선호의 차이를 보여준다. 10대부터 40대까지는 성장보다는 복지가 더 중요하고 생각하는 반면 50대 이상은 복지보다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안보 정책 관련 선호에 비해 성장과 복지에서 연령대에 따른 선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13] 연령대에 따른 성장과 복지에 대한 선호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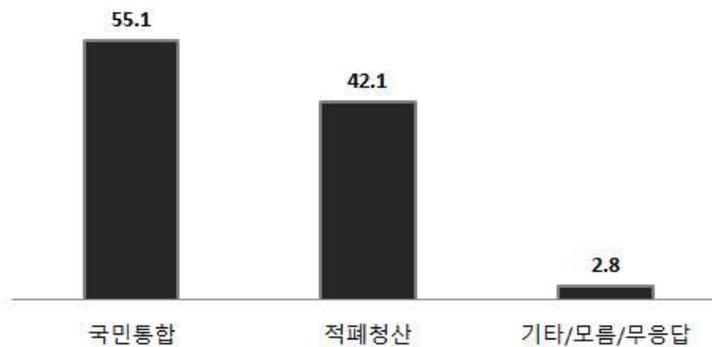
	성장	복지	기타/모름/무응답
19-29세	25.6	74.0	0.5
30-39세	32.5	65.5	2.0
40-49세	47.0	52.4	0.6
50-59세	64.2	34.0	1.8
60-69세	63.7	32.8	3.5
70세 이상	66.3	26.1	7.7



5. 국민통합 vs. 적폐청산⁴⁾

- 지금까지 살펴본 쟁점들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논쟁은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은 시민들은 정치개혁을 주요 공공 의제들 중 하나로 꼽았다.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이번 조사는 현시점에서 유권자들이 적폐청산과 국민통합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앞서 소개한 정책 선호 결과와 마찬가지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에 관한 유권자들의 선호 역시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시민들의 비율이 약 42.1%인 반면, 국민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설문참여자들의 비율은 약 55.1%이다.

[그림 6]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에 대한 유권자 선호 (%)



-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 역시 후보지지와 당파성, 이념,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는 모습을 보인다. 우선 후보에 따른 선호의 분포를 살펴보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은 적폐청산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 지지자들은 국민통합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그간 보인 후보자들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4] 후보 지지에 따른 국민통합과 적폐청산에 대한 선호 분포 (%)

	국민통합	적폐청산	기타/모름/무응답
문재인	36.9	61.9	1.2
홍준표	71.5	24.9	3.6
안철수	73.7	24.0	2.3
유승민	73.8	26.2	0.0
심상정	43.6	54.7	1.6
기타	60.0	29.8	10.3
없음/모름/무응답	63.3	27.8	8.9

4) 설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다.



- 국민통합과 적폐청산과 관련한 선호의 경우 후보 지지와 정당 지지 사이의 두드러지는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들은 적폐청산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국민통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정당 지지에 따른 국민통합과 적폐청산에 대한 선호 분포 (%)

	국민통합	적폐청산	기타/모름/무응답
더불어민주당	40.8	57.9	1.3
자유한국당	74.4	19.8	5.8
국민의당	72.0	24.4	3.6
바른정당	74.2	25.8	0.0
정의당	31.0	67.9	1.1
기타정당	60.7	33.4	5.9
없음/모름/무응답	61.3	34.6	4.1

- 이념에 따른 분포에서도 예상과 다르지 않은 형태를 보인다. 진보적인 유권자들의 약 60.2%가 적폐청산을 선호한 반면,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약 68.5%가 국민통합을 선호했다. 중도층에서는 약 60.5%가 국민통합을 선호했다.

[표 16] 이념에 따른 국민통합과 적폐청산에 대한 선호 분포 (%)

	국민통합	적폐청산	기타/모름/무응답
진보	39.5	60.2	0.4
중도	60.5	37.1	2.4
보수	68.5	28.4	3.1
모름/무응답	54.7	18.8	26.4

- 마지막으로 성장과 복지에 대한 선호와 마찬가지로 국민통합과 적폐청산의 경우에도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0대부터 40대까지는 국민통합보다 적폐청산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더 높았던 반면,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은 적폐청산보다 국민통합이 중요하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국민통합과 적폐청산이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이 나타난 쟁점일 수 있지만, 선호의 양상은 기존의 전통적 쟁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7] 연령대에 따른 국민통합과 적폐청산에 대한 선호 분포 (%)

	국민통합	적폐청산	기타/모름/무응답
19-29세	40.0	57.7	2.3
30-39세	44.8	54.8	0.4
40-49세	44.5	54.9	0.6
50-59세	63.0	35.1	1.9
60-69세	76.6	18.3	5.1
70세 이상	75.3	14.6	10.0



6. 결론

-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와 관련하여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 중 하나는 전통적인 쟁점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선호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책이나 쟁점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선호 차이는 후보 지지나 정당 지지 차이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 즉, 주요 쟁점에 관한 유권자들의 선호는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다. 물론, 탄핵과 관련한 유권자들의 생각은 상당히 긍정적이며 일방적이다. 예를 들어,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약 82%이며, “태극기집회”에 대해 비호감을 표한 응답자는 약 83.7%, 그리고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시민들의 비율은 약 76.8%이다.
- 이러한 사실은 이번 선거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보수적인 정당과 후보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반사이익을 주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보수적인 정책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을 수는 있어도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가 전반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는 없다.



EAI 2017 대선 패널 1차 여론조사 개요

조사의뢰기관	(재)동아시아연구원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지역	전국
조사일시	2017년 4월 18 - 20일 (3일간) · 4월 18일: 13시-21시 · 4월 19일: 13시-21시 · 4월 20일: 13시-21시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대상 선정방법	지역·성·연령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1,500명 · 유무선 RDD 748명, 액세스 패널 752면 · 유선번호 245명, 무선번호 1,255명
응답률	19.5% (총 7,695명과 통화하여 그 중 1,500명 응답 완료)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2017년 3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 오차는 $\pm 2.5\%$
질문내용	본 보고서 본문에 제시

EAI 2017 대선 패널조사 연구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 이한수(아주대) · 임성학(서울시립대) · 한정훈(서울대) · 배진석(고려대)
- 조사팀 : 오승호 · 전주현 (이상 한국리서치)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남지현 연구기획실 연구원(02-2277-1683 내선112, jhnam@eai.or.kr)

